

# 식탁물가 '쑥쑥'... 장보기 겁나네

### 잣은비·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에 농산물값 고공행진

### 양파·파프리카 한달새 200%↑... 내달까지 지속될 듯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파와 폭설, 일조량 감소, 잣은 비 등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재배농가가 농산물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려 농산물 가격 급등현상은 5월 중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과실류 폭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 배추, 대파, 미나리, 풋고추 등 채소류 가격이 전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 산지 물량이 늘면서 가격 급등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1년 전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다.

23일 현재 광주지역 도매가격 기준

으로 무(상품·1kg) 가격은 750원으로 1년 전보다 97.4%나 급등했고, 한달 전보다 53.0%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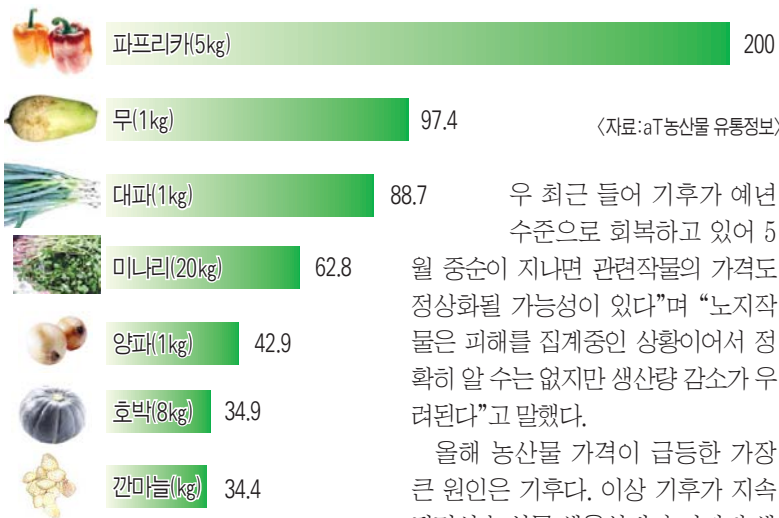
대파(“)도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88.7%, 미나리(20kg)도 같은기간 62.8%나 급등했다.

특히 양파(1kg)와 파프리카(5kg)는 한 달 사이 두 배나 폭등해 각각 1600원, 7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붉은고추(38.9%), 예호박(34.9%)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매가격 상승은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붉은 고추(200%), 대파(78.5%), 무(50%) 등 대부분의 채소류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과실류 가격 폭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3~4월까지 이어진

■광주 주요 식품 도매가격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우 최근 들어 기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5월 중순이 지나면 관련작물의 가격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지작물은 피해를 집계중인 상황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기후다.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생육상태가 나빠져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3월 일조시간이 지난해보다 77.1시간(40.4%)이나 줄었으며 강수량도 88.9% 증가했다.

이/연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세와 연이은 국내의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는 골드만 삭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고발이라는 돌발악재를 차산 속의 태풍으로 만들었다.

낮은 물가압력과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증시를 견조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장기간 상승세에 따른 부담을 크게 상쇄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실적장세의 연장선상에서 증시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라는 전망 속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초 골드만 삭스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기업들의 실적개선 발표와 미국 증시의 빠른 반등을 바탕으로 11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 IT·자동차주 추격 매수보다 조선·해운·항공주 주목해야

증시 부담요인으로 부각됐던 국내 주식형펀드의 대규모 환매나 원화환율의 급락세도 크게 진정됐다. 그럼에도 이번 주 시장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주 역할을 수행했던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차이실현 집중으로 상승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록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자칫 박스권 장세로의 진입 조짐도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증시 안락의 환경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의 높은 상승폭에도 거친 가격

조정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조정 양상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금주 시장의 대응은 IT나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추격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라는 한 템포 늦춰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며, 여전히 가격메리트가 큰 조선주나 해운, 항공주 등에 대한 관심의 유지를 권한다.



## 광주·전남 소주시장 주춤 (주)콜렉트대부 '친절 마케팅'

막걸리 인기에 1.7%P ↓  
진로 점유율 2.6%P 상승

막걸리가 광주·전남 소주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진로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전남지역 월평균 소주 판매량은 60만6463박스(1박스 360ml, 30병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소주 시장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은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막걸리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소주 소비가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주업체의 시장 점유율에도 미세한 변화가 엿보인다. 보혜의 광주·전남지역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진로는 다소 상승한 것이다.

올 1분기 광주·전남지역 소주시장 점유율은 보혜가 80.6%, 진로 18.1%, 기타 1.3%로 파악됐다. 보혜는 전년 동기대비 2.6%포인트 하락했고, 진로는 2.6%포인트 상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고객 중심형 상품 인기

'신속·무이자 대출' 위주였던 서민대출기관의 마케팅 키워드가 '친절'로 바뀌고 있다.

25일 (주)콜렉트대부에 따르면 루스모 수시출금서비스, 플래티늄론 등 '친절상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즐겁고 유쾌하게 대출해준다'는 캐치 프레이즈로 지난 3월초 선보인 '루스모'는 대표적인 생활금융 브랜드로, 수시출금서비스의 경우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신청건수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호평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일일이 전화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플래티늄'은 40%대 고금리 상품 이용자들이 저금리(16%~39.785%)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형 상품이다.

콜렉트 대부는 이와 함께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친절하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직원 대상 정기 불법 추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어린이 모델들의 패션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현지법인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25일 1층 광장에서 아동패션쇼를 열었다. 어린이 모델들이 올 여름 유행할 옷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현지법인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25일 1층 광장에서 아동패션쇼를 열었다. 어린이 모델들이 올 여름 유행할 옷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과〉

### 삼성생명 공모가 11만원 내달 3~4일 청약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인 삼성생명의 주당 공모가가 11만원으로 결정됐다.

삼성생명 상장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거쳐 삼성생명의 공모가를 1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22조원으로, 23일 증가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신한지주, 한국전력에 이어 시총 6위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5월 3~4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같은 달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충정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제주 올레길 스탬핑 투어 1일 2만원

문의: 064-744-1109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062-227-2336, 010-7671-5623